

#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자격없다”

## 청문회에서 여야 쟁점다뤄... 불교계도 비판 고조

장애인 판사로 잘 알려진 김신(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 중 법정에서 기도회를 열고, 특정종교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등 과거 종교편향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불교계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산·울산 지역의 성시화 운동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분쟁 다루며 기도회 부산지역 성시화 운동 주도 김신 “종교편향 동의 안해” 종자연 등 교계 성명서 발표

이 같은 김 후보자의 행적은 7월 1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논란거리였다. 여야 의원들은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법관이라면 법과 양심이라는 사법적 틀 안에서 판결해야 하는데 종교편향이 심하다”며 “사회적인 상식이나 도리에서 벗어나더라도 종교가 있다면 편향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한 것과 김 후보자의 부산 성시화 발언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면서 “종교적 신념을 달리하는 국민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종교편향 행적은 최재천 민주당총장도 국회의원을 통해 7월 8일 세상에 알려졌다. 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부산 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교회 분열을 조정하는 재판정에서 목사와 장로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아멘’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종교편향적 행보는 성시화 운동 등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 전체를 기독교화 하겠다’는 성시

화 운동은 수차례 종교 갈등을 유발해 온 전례가 있어 왔다. 부산기독교인기관장회 회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부산 성시화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지방법원장 임명 후에는 울산 지역 성시화를 위해 울산기독교인기관장회 창립하는 등 부산, 울산 지역 성시화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종교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망언을 자신의 저서에 담아놓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 2001년 1월에 일어난 인도 대지진에 대해 기술하며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이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범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냈다.

이 같은 종교편향적 행보에 대해 불교계와 시민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7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신 후보자의 행적과 일련의 발언들은 이미 헌법 제20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 제1항(종교중립의무 위반) 등의 위반에 해당된다”며 “김신 대법관 후보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음)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사) 역시 “국회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즉각 철회하고 김신 후보자는 종교 편향적 언행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종일 기자 motb79@hyunbul.com



7월 7일부터 8일까지 속초 신홍사서 열린 2012 체육인 불자회 하계 수련대회는 런던올림픽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사진은 8일 열린 수계법회에서 수계사 스님들이 선수들에게 연비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1면에서 계속

이날 법회에 참가한 배트민턴 이용대 선수는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올림픽 출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조계종 체육인불자회(회장 이경훈)도 7월 7일부터 8일 제3교구본사 신홍사 일원에서 하계 수련대회를 열고 런던올림픽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8일에는 새벽 예불과 선수단 수계식을 함께 불행했다. 이날 수계법회 나신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수계 법문을 통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는 불자 선수와 선수단의 올림픽 선전을 기원하는 각계의 격려가 쏟아졌다.

신홍사 주지 우송 스님은 “추위가 뻘속까지 사

무치는 경험이 있어야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동안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과 임원진들은 이런 원력을 세우고 불철주야 용맹정진을 해왔을 것이다. 이제 40여 지구촌 인구 앞에서 진한 매화 향기를 맡는 일반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하계 수련대회에 참석한 최규진(그레코로만, 55kg) 선수는 “준비를 많이 했던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는 금메달”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테슬링은 신체 접촉이 많은 격기(擊技)다. 그만큼 마음의 평정심이 중요하다. 불교 신행은 성격향상 많은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한편, 하계 수련대회는 불교 참선 강의, 비룡폭포 걷기 명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신종일 · 이은정 기자

# “종교단체 평생교육시설 운영 제도 필요”

## 최재성 의원 입법공청회... 현행 법상 문제점 논의

고령화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종교계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제도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재성 민주당총장 국회의원이 7월 12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종교단체의 평생교육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종교계를 비롯해 정치·법조계, 정부, 시민사회 인사들의 제도 마련에 대한 입장이 일치했다.

이날 기초발제를 맡은 황재선 변호사는 종교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했다.

황 변호사는 △설치지역에 관한 문제 △설립주체의 문제 △강좌의 문제 등으로 나눠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교단체 시설 이용 및 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안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건축법 시행령에는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조차 없어 학원처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며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특성에 맞게 종교단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현행법상 종교단체는 법인 및 단체 설립 후 부설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운영을 허가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평생교육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원 등과의 이익충돌문제에 대해서는 “반경 10km이내 학원 교습과목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7월 12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정치·종교·시민사회계의 제도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모아졌다.

### 공공성 맞춰 종교시설 이용 인성, 문화프로그램 등 개발

제한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병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장과 조현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사무관,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총괄기획이사, 정성진 기독교 공공정책협회 기록한빛 광성교회 목사 등이 열린 토론을 전개했다.

이태호 조계사 기획이사는 “종교시설이라 할 지라도 종교상징물이 없는 공간은 평생교육원 교육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강좌 또한 종교관련 강좌와 학원법에 저촉되는 청소년 대상 학과목 강좌 개설을 금지하되 인성과 심성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등 다른 강좌는 개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한컴오피스 불교용어 한자변환 쉬워진다

## 동국대 불교학술원·한컴 MOU체결

한컴오피스(이하 한컴)에서의 불교용어 한자변환을 비롯한 활용이 보다 쉬워진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7월 11일 동국대 총무로영상센터에서 한글과컴퓨터와 ‘불교기록문화유산사업·한컴오피스 한자사전의 개선 협력’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존 불교용어의 경우 한자사전에 대부분이 등록돼 있지 않아 한자로 변환할 때 한 글자씩 변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로 보리(菩提), 보살(菩薩) 등 대표적인 불교용어조차 한자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한 글자씩 맞는 한자를 찾아야 했다.

이제는 검색엔진이 단어를 인식하면 한자 변환키 한 번에 한글 불교용어는 한자로 바뀔 수 있게 됐다.

불교학술원은 한컴 측에 검수가 완료된 2만여 불교단어를 제공하고 2014년 말 10만 단어까지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한컴은 제공받은 불교용어를 향후 출시 예정인 한컴오피스 제품과 기존 제품에 업데이트 등으로 반영한다.

노덕현 기자

# “불교닷컴 경영비리 해명하라”

## 조계사호법위, 재차 문제 제기

조계사호법위원회(위원장 성진)가 불교계 인터넷 언론인 ‘불교닷컴’에 경영비리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조계사호법위원회는 7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등록 미비로 대규모 매출 누락 및 탈세 △말벌자가 대표로 있는 (사)불지회와의 금전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후원인 모집 등을 구체적인 의혹을 제시했다.

조계사호법위원회에 따르면 ‘불교닷컴’의 광고비 청구 입금 계좌가 이사 1인, 감사 1인이 있는 ‘불교닷컴(주)’이었으며, 두 회사 모두 사업자 등록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학교, 기업 등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했을 때에는 (사)불지회를 통해 광고비를 수령하게끔 했다.

이와 함께 ‘불교닷컴’이 “미디어포교에 매진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불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유포하고 불법적으로 후원자를 모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함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대표 퇴후)도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닷컴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교계 쇄신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묵살할 경우 사법기관 제소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신종일 기자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